

고령의 미술과 개포동 마에보살좌상

정은우*

차례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고령의 미술
- III. 고령 개포동 마에보살좌상의 현상적 특징
- IV. 도상 및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경상북도 고령에는 고려시대의 석탑, 석등, 불상 등 불교미술품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개포동 마에보살좌상은 뒷면에 옹희2년에 제작되었다는 명문이 있어 985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삼면으로 나뉘어진 보관을 썼으며 그 안에는 화불이 명료하게 새겨져 있으며 손에는 연꽃가지를 든 점이 특징이다. 보살입에도 천의가 아닌 여래가 입는 변형편단우견식의 대의를 입은 점도 매우 독특하다. 이상의 다양한 특징들은 대체로 고려전기 보살상에 보이는 특징들이다.

현재 명문이 있는 고려시대의 마에불은 977년(태평2)에 수리된 경기도 광주 년명 약사여래좌상과 981년(태평흥국6)명 이천 마에보살좌상(전체높이 3.2m) 그리고 개포동 마에보살상 등 3점 밖에 없다. 981년명 이천 마에보살상과 985년명 개포동 마에보살상은 두 상 모두 비슷한 시기에 흡사한 보관 형식 그리고 보관의 화불과 손에 든 지물까지 매우 비슷하다. 이 두 보살상의 명칭에 대해서는 관음 혹은 미륵으로 불리고 있다. 화불이나 연꽃가지의 표현에서는 관음보살일 가능성도 높지만 미륵 역시 화불이 있는 보관을 쓰며 보살이 입지 않는 대의식 착의법을 걸친 점 등에서는 미륵일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륵보살의 경우 화불이 있는 작품은 통일신라 719년 감산사 미륵보살입상에서부터 나타나며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나 〈미륵대성불경〉 등 미륵 관련 경전에도 등장하는 도상적 특징이다. 연꽃은 원래 관음보살의 특징이지만 미륵의 성도와 관련된 상상의 식물인 용화수가 당시 보편적인 지물인 연꽃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으로 개포동 보살상의 정확한 존명은 고려전기 10세기 고령지역의 사상이나 신앙적 측면과도 관련지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주제어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미륵 화불 연꽃가지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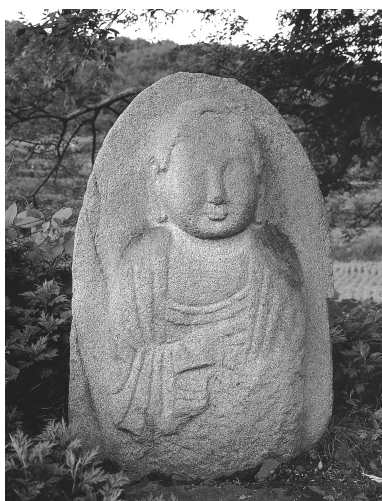
경상북도 고령 개포동에 있는 마애보살좌상은 화강암 암벽에 가는 선각으로 조각된 상으로서 현재 위치한 장소가 원래의 위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관에 화불이 있으며 손에는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점 등 도상적인 특징은 뚜렷한 반면 신체비례가 안 맞고 두 다리의 표현은 지극히 형식화된 점, 사실감이 떨어지는 착의법과 옷주름의 표현 등이 특징이다. 보살상이면서도 여래형의 변형판단우견식 대의를 걸쳤으며 들고 있는 연꽃가지와 보관 형식의 특이성에서 주목된다. 또한 뒷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985년(성종4)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에서 명문불상이 적은 고려전기 불상연구에 중요한 기준자료가 되는 작품이다.

이 보살상에 대해서는 이제 까지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간단한 작품 소개 정도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단순하게 관음보살일 가능성과 지방적 성격이 강한 치졸한 작품으로 이해되어 온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고령 지역에 남아 있는 불교조각, 석탑, 석등 등 고려시대의 불교미술들

을 소개하고 이어서 개포동 보살상의 전반적인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상 및 형식에 대한 특징 분석을 통해 고려시대 불교조각에서 이 보살상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려시대 고령의 미술

고령에 있는 고려시대의 작품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985년의 명문이 있는 고령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87, 시도유형문화재 118호)과 고령 대평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427,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59호)을 들 수 있다(그림 1). 보살상은 우수한 작품은 아니지만 제작연대가 뚜렷하여 명문상이 적은 고려전기의 특성상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비해 대평리 석조여래입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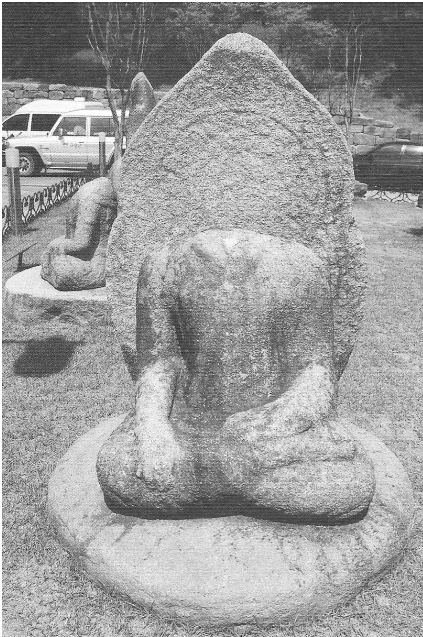


〈그림 1〉 고령 대평리 석조여래입상 고려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신체의 하단부가 땅에 묻혀 있어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보살상에 비해 조형적으로는 좀 더 우수한 예로 생각된다. 타원형의 화강암 암석 위에 부조로 제작되었다. 동그란 얼굴에 뺨에 살이 통통하게 붙었으며 코와 작은 입은 선명한 반면 눈은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목은 거의 없는 듯 짧으며 등근 어깨에 통견식의 대의를 걸쳤다. 오른손은 가슴 부위에 놓았지만 손가락의 표현은 분명하지 않으며 왼손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2〉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고려초(일제 강점기의 사진), 현재 대가야박물관



〈그림 2-1〉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고려초, 현재 대가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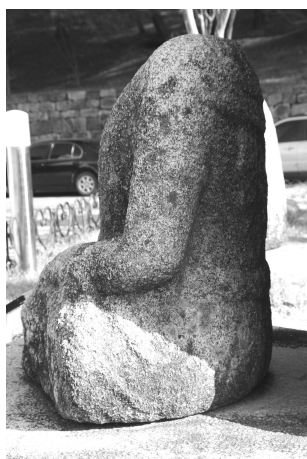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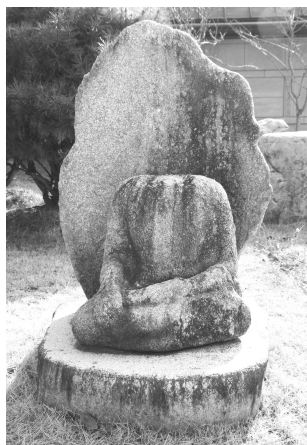
현재의 모습만으로 보면 이 여래상 역시 보살상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마을에서는 불상이 있는 이 골짜기를 미륵골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불상 역시 미륵여래상으로 불리는 듯하다.

고령지역에 남아 있는 불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놓여 있는 불상 네 구가 있다. 고령군에 흩어져 있던 불상들을 고령향교 뒤편 연조공원에 두었다가 2004년 12월 이 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¹⁾ 일제 강점기에 찍은 사진에는 모두 네 구의 석불이 있는데 그 중 세 구는 머리까지 있는 보다 완전한 모습이다(그림 2).²⁾ 현재 정원에 있는 네 구의 불상은 모두 좌상으로 향미축지인을 한 두 구와 나머지 두 구는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좌상이다. 이들은 모두 통일신라 하대에서 고려 초기 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

1) 대가야박물관 편, 『옛 고령사람들의 자취를 찾아서』, 2006. 12, 165쪽.

2) 이 사진은 대가야박물관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학예연구관 선생께 감사드린다.

정되며 광배의 일부 혹은 머리 부분, 무릎 부분 등 일부 파손된 상태이다. 그 가운데 항마촉지인을 한 석조보살좌상 한 구가 매우 주목되는데, 머리는 완전히 없어졌고 광배도 일부 파손된 상태이며 대좌도 원래의 것은 아닌 듯하다(그림 3). 보살상의 크기는 64cm, 무릎은 일부 깨졌지만 현재의 폭이 70cm 정도로 큰 편이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결하였으며 어깨에는 솔과 같은 천의를 걸쳤고 목걸이와 팔찌를 한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보살상 가운데 항마촉지인을 한 경우 보관을 쓰거나 장엄을 한 석가불일 경우가 높는데 현재 머리 부분이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다. 앞의 사진에 있는 왼쪽 두 번째 불상이 이 보살상과 가장 가깝게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만일 맞다면 원래의 대좌로 추정되는 일부가 있었으며 머리 부분은 보살의 보계인지 여래의 육계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보관은 없었던 것 같다. 항마촉지인의 보살형 석가불상은 중국 당대의 경우 그 예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경우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³⁾



〈그림 3〉 석조보살좌상 통일신라 대가야박물관

이외에 현재 대가야박물관에 이전되어 있는 고령군 지산리에 있었던 반통사다층석탑이 있다(그림 4).⁴⁾ 화강암으로 만든 지대석 위에 점판암을 재료

3) 김리나, 「중국의 항마촉지인 불좌상」, 『한국고대불교조각사 연구』(일지사, 1989), 291~336쪽.



〈그림 4〉 반룡사다층석탑, 고려, 대가야 박물관



〈그림 5〉 석등, 고려, 대가야박물관

로 간격이 좁은 탑신으로 이루어진 이 다층석탑은 금산사 육각다층석탑과 더불어 고려시대의 이형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옆으로 층이 있는 점판암의 특성 때문인지 옥개석을 각기 따로 만들어 쌓아 올린 형식으로 현재 12층이 남아 있다. 하단부에는 올림과 내림연꽃을 새긴 지대석 두 개가 있으며 그 밑 기단석은 화장암으로 다시 만들어 받쳐 놓은 상태이다. 반룡사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 불우조에 고려후기의 기록인 남아 있는 정도이다.⁵⁾ 현재 같은 형식의 점판암으로 제작된 다층석탑은 전국적으로 약 13기 정도 남아 있으며 대부분 고려전기의 작품들이다. 고려시대 무덤의 석관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점판암이라는 재료와 더불어 옥개석이 하계 요대에 유행했던 밀침식 석탑 형식을 보이는 점에서 앞으로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 대가야박물관에는 고려시대의 석등이 옮겨져 있다(그림 5). 현재 相輪部는 결실되고, 屋蓋石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4) 반룡사의 사세와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채상식, 「고령의 반룡사와 체원의 화엄사상」, 『고령문화사대계 2 사상편』, 361~391쪽.

5) 한기문, 「고령지역 불교사상의 전개」, 『고령문화사대계 2 사상편』, 고려군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12, 181쪽.

전체적인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地臺石과 상·하대석, 옥개석의 폭은 동일한 비율을 이루나, 팔각형 竿柱石의 길이가 길어져 기단부의 전체길이가 火舎部에 비해 장대한 형태를 보인다.

방형의 지대석 위로 仰蓮의 팔각蓮板이 위치하는데, 이는 母葉과 2개의 子葉이 겹쳐진 複瓣 구조이다. 하대석의 상면에는 간주석을 받치기 위한 角形의 1단 받침대가 조출되었고, 팔각의 간주석 위로는 하대석과 동일한 형태의 연화대석이 있으며, 이는 상대석 상면의 방형 화사석받침과 통석으로 이루어졌다. 화사석은 방형으로, 4면에 방형의 火窓을 두었다. 옥개석은 사모지붕으로, 轉角이 두꺼우며 기왓골의 표현 없이 각면의 合角에 隅棟이 설치되었다. 처마 내부에는 2條의 낙수골이 있다.

따라서 대가야박물관 소장품의 석등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방형의 화사석과 옥개석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도 경상도 지역에서 꾸준히 계승되는 팔각간주석과 복판복엽의 연화대석을 갖춘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대가야박물관에 전시된 4.8cm의 작은 동조신장상은 고려 연조2리에 거주하는 김태영 씨의 집 마당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그림 6).⁶⁾ 입상으로 너무 작아 윤곽만 보일 뿐 세부적인 특징은 고찰하기 어려운데 두 손은 가슴 근처에 모아져 있으며 발 밑에는 축이 남아 있어 어딘가에 꽂혀 있었던 상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소개한 고령의 고려시대 작품들은 그 수가 적고 양식적인 특성에서 같은 사찰에서 같은 시기에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다만 고려후기보다는 전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동조신장상, 고려 연조 2리 출토, 대가야박물관

6) 한기문, 「고령지역 불교사상의 전개」, 『고령문화사대계 2 사상편』, 183~184쪽.

Ⅲ.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의 현상적 특징



〈그림 7〉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고려,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은 30cm 정도 두께에 높이 1.5m, 너비는 1.0m의 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그림 7). 얇은 부조와 선각을 이용하여 조성한 보살좌상은 전체적인 특성상 시대를 대표할 정도의 조형적으로 우수한 작품은 아니지만 정확한 제작연대가 있고 보관의 형상이나 연꽃가지를 든 지물이 매우 독특한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현상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머리에는 보살의 특징인 화불이 있는 보관을 썼는데 그 밑으로 머리카락이나 어깨에 늘어진 보발의 표현은 전혀 없다. 보관은 3단으로 나뉘어진 모습으로 양측으로 관대가 빠져 나와 있으며 보관과 관대의 연결지점에 꽃 장식이 달린 매듭으로 고정하였다. 보관의 양 측면에는 귀의 선을 따라 관대가 곡선을 이루며 흘러내려와 있다. 얼굴은 이마가 넓으면서 둥근 모습으로 현재 보석이 없어진 백호구멍이 크게 남아 있으며 눈과 눈썹은 옆으로 길고 입은 매우 작은 편이며 광대뼈가 솟아 토속적이면서도 개성적인 형상을 보인다. 양 쪽의 귀는 중간에 종선만을 그어 매우 형식적인 모습이다.

착의법은 대의를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으로 걸친 변형편단우견식으로 왼쪽 어깨 뒤로 그 옷자락이 걸쳐 넘어간 모습을 표현하였다. 옷주름은 가는 선각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듯 리드미컬하게 표현하였지만 몸의 굴곡이라든지 신체의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극히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두 손은 크기라든지 길이 면에서 다소 다르게 처리함으로서 전체적인 조

각수법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양 손의 손가락이나 지물은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오른손은 가슴으로 들어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굽혔으며 왼손은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이용하여 연봉오리와 활짝 핀 연꽃이 있는 가지를 잡고 있다. 특히 연꽃가지는 보살상과 달리 매우 자세하게 조각하였으며 연봉오리와 점점 피어나는 연꽃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실감나게 표현하여 흥미롭다. 등근 무릎은 윤곽만으로 표시하였으며 두 발은 양 측면에 대칭으로 작게 묘사하였는데 발가락과 발바닥의 주름을 직선으로 무성의하게 처리하였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강암 전면에 가득 차게 구성되었는데 두광은 윗 부분이 뾰족한 보주형으로 처리하였다. 가장 바깥부분에는 화염문을 새겼으며 그 안쪽으로 올챙이 같은 문양을 가득 새겼다. 현재 밑면에는 선각의 양련 대좌가 표현되어 있다. 정면은 삼중연판으로 그 좌우는 2중으로 그리고 점차 비스듬하게 바뀌면서 단판으로 처리하여 입체에서 점차 평면으로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듯하다.

광배 뒤편의 왼쪽 면에는 가로 20cm 세로 48cm의 직사각형 안에 선을 만들고 그 안에 네 줄의 명문을 새겼다. 오른쪽에서 부터 “雍熙二年乙酉十月二十三日□□□白 □住方□念之法師□□□□□長” 명문이 새겨져 있어 985년(성종)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1).⁷⁾ 명문은 글자의 크기와 위치, 배열 등이 고르지 않고 마모된 부분도 많아 전체적인 해석이



〈그림 7-1〉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명문

7) 이 명문은 고령 다가야박물관에 있는 개포동마애보살좌상 복제품의 설명문을 그대로 따왔다.

어려운 편이다. 다만 “옹희2년을유시월 이십삼일”이라는 제작연대는 다른 글자에 비해 크고 매우 또렷하게 남아 있다. 통상적으로 제작연대 다음은 제작 목적이나 후원자 이름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상으로 개포동 마애보살좌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소개하였다. 이 마애보살좌상은 입체감이나 양감의 표현이 거의 없으며 단순한 부조와 선각 위주로 조각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정교한 상은 아니지만 보관과 화불, 얼굴 그리고 고 손에 든 연꽃가지 등은 정확하면서도 사실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반면 신체의 표현이나 옷주름 등은 소략하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려시대 석불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관촉사 석조보살상이나 중원 미륵대원 석조여래입상, 충청남도 당진 안국사지 석조삼존불입상, 중원미륵대원 석조여래입상 등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5m 이상의 대형석불의 경우에도 얼굴이나 손은 구체적으로 조각하면서 신체는 대충 처리한 공통점을 보이며 특히 지물 표현은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공통점을 보인다.⁸⁾

IV. 도상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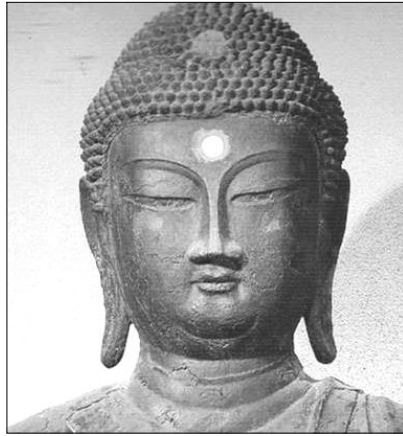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포동 보살상은 가늘고 긴 눈과 작은 입, 통통한 뺨이 특징이며, 3면보관과 빨처럼 수평으로 뻗은 관대, 변형식 편단우견의 착의법 등이 독특한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불상들과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 정은우,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박물관기요』 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2007), pp.83~87.

먼저 동그란 얼굴에 통통한 뺨, 가느다란 긴 눈, 작으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입술 등은 고려전반기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그림 7-2). 이 얼굴 모습은 10세기로 추정되는 경기도 광주 철조여래좌상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조불두의 얼굴과 닮았다(그림 8). 특히 동그란 얼굴형과 직선으로 긴 눈 그리고 유난히 작은 입 등에서 비교된다.



〈그림 7-2〉 고령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좌상 얼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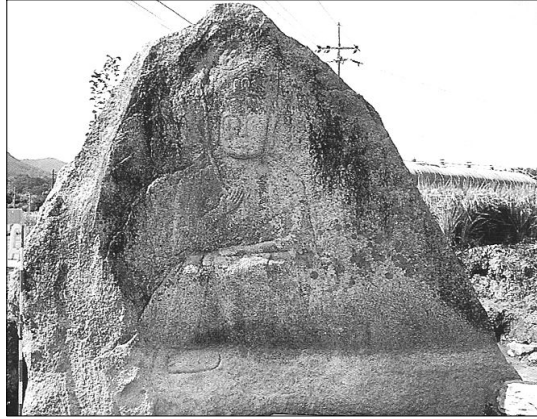
〈그림 8〉 경기도 광주 철조여래좌상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머리에 쓴 삼면으로 나뉘어진 보관과 양 측면의 뿔과 같은 관대 역시 특이한 형상이다. 이와 같은 삼면관은 고려시대의 금동불을 비롯한 환조불에서는 잘 볼 수 없는데 반해 마애불에서는 그 사례가 많은 편으로 고려시대 10세기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던 형식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환조불의 보관 형태를 평면의 마애불로 옮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같은 보관 형태를 서울 흥은동 보도각 백불(그림 9),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대구 염불암 마애보살좌상 등(그림 11) 고려시대 마애보살상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는 점과 관대 밑으로 늘어진 수식이 없는 점에서

차별된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981년명 마애보살좌상도(그림 10) 같은 보관형식인데 양 측면에 관대가 없는 점이 다르다.



〈그림 9〉보도각 백불 고려 서울 홍은동



〈그림 10〉태평흥국 6년명 마애보살좌상, 고려 981경기도 이천



〈그림 11〉염불안 마애보살좌상

세 개의 면으로 분리된 삼면 보관형식은 고려 이전부터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세 개의 면이 따로 분리된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상북도 군위 석조삼존불의 협시보살상에 보이는 보관이다(그림 12). 삼면 중 가운데를 볼록하게 솟은 듯 처리하는 방식도 삼국시대 보살상의 삼산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상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 7~8세기의 보살상의 보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인다.⁹⁾ 이후 고려시대에는 평양 영명사 불감내 북면에 새겨진 마애보살상의 보관이나 김천 광덕동 석조보살입상 등으로 이어진다(그림 13). 여기에 광덕동 마애보살상의 경우에는 수평관대가 있어 개포동 보살상과 더욱 유사하다. 따라서 개포동 보살상의 삼면관은 삼국 이후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삼산관에서 고려적인 삼면관으로 변용되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비슷한 형식은 고려전기에 보이는 삼엽관이다. 마치 세 개의 꽃잎사귀 형상으로 이루어진 이 보관 형식은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의 금동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함양출토 금동보살좌상 등에서 보이는데 중국의 경우 오대에서 북송 초기에 걸쳐 나타나는 보관 형식이다.¹⁰⁾ 특히 이 보살상의 보관과는 옆으로



〈그림 12〉 군위 아미타삼존불상 중 협시보살상의 보관, 통일신라 경상북도



〈그림 13〉 광덕동 석조보살입상 고려, 경상북도 김천

9) 국립경주박물관편, 『신라의 금동불』, 2002, 도 47, 도 53 참조.

10) 정은우,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 고려중기 금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 동국대학교

리본을 묶어 모양을 낸 관대 형상에서도 개포동 보살상의 리본관대와 비슷하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유형의 보관 형식이 지방에서 도식화된 표현으로 변형되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림 14〉 분황사 석조보살입상, 통일신라 8세기 말 9세기 초, 경주 국립박물관



〈그림 15〉 석조여래좌상, 고려, 국립공주박물관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마치 반달처럼 대의를 걸치고 옷자락이 다시 왼쪽 어깨로 넘어가는 변형식의 편단우견이다. 이는 중국의 경우 당대에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8세기 말에서 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분황사 석불군 가운데 한 구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매우 드문 형식이다(그림 14). 그런데 고려전기에는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몇 구의 작품이 전한다. 1090년에 조성된 강원도 원주 立石寺 마애여래좌상(높이 170cm),¹¹⁾ 1085년 지광국사 현묘탑의 옥개석에 있는 사방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강원도 원주 본부면출토 철조여래좌상으로 모두 여래상들이다.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중인 금정리사지에서 옮겨 온 석조여래좌상도 역시 같은 착의법에 무성한 듯한 옷주름의 표현까지 비슷하다(그림 15). 즉 이러한 착의법은 여래가 입는 대의 형식으로 개포동 보살상처럼 보살상이 변형 편단우견식 착

박물관, 2006, 3~18쪽.

11) 임영애, 「원우5년 원주 입석사 마애불좌상」, 『강좌미술사』 12,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3, pp.195~211.

의법을 입은 매우 드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이 여래형의 대의를 입은 경우로는 관촉사 석조보살입상(그림 16), 대조사 석조보살입상(그림 17), 예산 삼교 석조보살입상, 경기도 시흥 소재산 선각보살입상, 경상북도 김천 광덕동 마애보살입상 등이 있다. 이 상들은 모두 고려건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은 승려 혜명이 광종(949~975)의 명으로 조성하였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관촉사사적기』의 기록이 있어 10세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¹²⁾ 관촉사 보살상은 보관에는 화불이 있었다고 하며 손에는 철제연꽃가지를 들고 있어 은진미륵으로 구전되고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도 돌미륵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조사 보살상 또한 관촉사 보살상과 매우 비슷한 모습인데 거대한 크기와 머리위의 보개, 철제 연꽃가지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관촉사와 매우 가까운 점에서 이 지역의 특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광덕동 마애보살입상은 보관이나 그 측면에 수평으로 뿔은 장식에서 개포동 보살상과 매우 비슷한데 역시 통견식 착의법을 하고 있다.



〈그림 16〉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고려, 충청남도 부여



〈그림 17〉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고려, 충청남도 부여

12) 〈사적기〉에는 968년부터 돌을 구하여 970년부터 1006년에 끝마쳤다고 한다. 최선주, 「고려초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연구』 14, 2000. 3~33쪽; 정은우,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흐름과 특징」, 『박물관기요』 22, 2007. 12, 83~87쪽.

따라서 대의를 걸친 보살상 형식은 고려 초기 10세기경부터 제작되고 유행했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 가운데는 미륵으로 알려진 작품들이 많아 보살이지만 성도 이후의 여래상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그렇다면 개포동 보살상의 존명은 무엇일까? 개포동 보살상은 머리에 화불이 있는 보관을 썼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관음보살이 된다. 그러나 손에 든 연꽃가지라든지 대의식 착의법은 전형적인 관음상과는 다른 형식적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고려시대 관음상의 형식 분석을 통해 개포동 보살상의 존명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관음보살의 도상은 국적이나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는 〈請觀音經〉의 “柳枝와 淨水を 바치니”라는 내용에 따라 버드나무 가지나 물을 담을 수 있는 정병이나 발우를 든 작품이 제작되었다.¹³⁾ 이후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 등 아미타정토계 경전이 한역되고 유행하면서 보관에 아미타불을 새기는 형식이 일반화된다. 〈관무량수경〉에는 협시보살인 관음과 세지보살의 형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마니보주로 된 천관이 있고 그 천관 속에는 화신불 한 분이 서 계시는데 높이가 이십오유순이라—”¹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어디에서나 같은 모양으로 나투는데 증생들은 다만 머리만을 보아도 알 수 있나니—그 머리의 보배관에 부처님이 계시면 관세음보살이고, 보배병이 있으면 대세지보살이니라 이 두 보살은 언제나 아미타불을 도워서 두루 일체 증생을 교화하느니라”¹⁵⁾라는 경전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13) 안귀숙, 「중국 정병 연구」, 2000,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4) 〈관무량수경〉 제2장 正宗分 제10절 觀音觀.

15) 〈관무량수경〉 제2장 정종분 제13절.

우리나라의 관음상도 시대에 따라 다른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보관에 화불이 있으면서 손에 정병이나 연봉오리를 든 형식이 유행하였다. 또는 두 손을 배에 두고 보주를 잡은 봉보주보살상도 관음으로 인식되었다.¹⁶⁾ 통일신라시대에도 보관에 아미타화불이 있는 관음보살상의 제작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손에는 정병을 들기도 한다. 그런데 719년에 제작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경우 뒷면의 명문으로 미륵보살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인데 독특하게 보관에 화불이 등장한다(그림 18).¹⁷⁾ 즉 보관에 화불만으로 단순하게 관음으로 볼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불이 있는 관음보살은 <관무량수경>에 의거한 것이며, 화불을 가진 미륵 도상은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의거한 것이다.¹⁸⁾



〈그림 18〉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관, 통일신라 719년,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의 관음 도상은 더욱 다양한 양상이 전개되며 미륵 도상 역시 새롭게 전개된다.¹⁹⁾ 먼저 고려시대 관음 도상은 보관에 화불이 있는 작품이 계속 제작되었다. 개성 관음굴의 석조보살상은 보관의 화불과 기록상으로도 관음보살로 확인되는 경우이다.²⁰⁾ 경기도 연화정사 탑 안에서 출토된 소조보

16) 김리나, 「삼국시대의 봉지보주형보살입상 연구」,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문예출판사, 1989, 85~143쪽.

17) 김리나, 「통일신라시대 전기의 불교조각 양식」, 『미술자료』 37, 1985, 12(『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문예출판사, 1989, 184~186쪽 재수록).

18) 정은우, 앞의 논문, 『박물관기요』 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p.89.

19) 고려시대의 관음 도상에 대해서는 정은우,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 8, 2009, 10, 113~127쪽.



〈그림 19〉 경기도 연화정사 탑 안 출토 소조보살입상, 고려

살입상의 경우처럼 손에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든 관음보살 유형도 보인다(그림 19).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請觀音經』의 내용 중 위에서 든 “柳枝와 淨水를 바치니” 또는 “비사리사람들은 齒木과 淨水를 갖추어 관세음보살에게 바치니”에 기인하여 원래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오랫동안 유행했던 형식이다.

또 다른 관음보살 유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좌상으로 개포동 보살상과 같은 도상적 특징을 보이는 사례이다(그림 20). 낮은 원통형 보관과 화불, 손에 든 연꽃이 독특한데 이는 지물이 많지 않은 이전 통일신라기의 보살상과 구별되는 점이다. 비슷한 보살상이 청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석조보살좌상이나, 청암사 수도암의 석조보살좌상 등인데 원통형의 낮은 관과 연꽃을 들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관음보살이 연꽃을 든 가장 이른 예는 942년 대영박물관소장의 돈황 17굴 관음보살도로서 원통형 보관을 쓰고 손에는 연화송이를 들고 있는 관음의 지물을 확인할 수 있다.²¹⁾ 관음이 연꽃을 드는

20) 정은우,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상과 송대 외래요소의 수용」,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예경, 2007, 193~207쪽.

것은 『팔대보살만다라경』에 “관음보살은 오른손은 여원인을 짓고 왼손에는 연화를 들며”라는 경전 내용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보관에 화불이 있으면서 손에 연꽃을 든 대형석불이 많은 점이 특히 주목되는 특징이다. 이 보살상들의 존명에 대해서는 관음인가, 미륵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미륵으로 보는 보살상으로는 18m의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이 가장 유명하다. 손에는 철제연꽃가지를, 현재는 없어졌지만



〈그림 20〉 동조보살좌상,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원래 보관에는 화불이 있었다고 하며 은진미륵으로 불리워졌다. 충주 미륵대원의 여래입상 역시 손에 연꽃송이를 들고 있는 형상에서 특이하며,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현재 보관이 없어져 화불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손에는 현재 윗부분이 없어진 철제 가지만 들고 있지만 연꽃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보살상들은 기록이나 전해오는 명칭 등에서 모두 미륵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작품들로서 보관의 화불과 손에 든 연꽃가지가 특징이다. 미륵은 원래 지물로서 용화수나 정병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륵이 손에 연꽃을 들고 있음은 당대 725년 선무외에 의해 번역된 『大日經』에 미륵보살이 “오른 손은 연화를 쥐고 있는데 그 위에 병이 안치되어 있다”라고 한테서 연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일경이 유입되었던 통일신라기에는 사례가 없었던 형식이고 병이 없이 연꽃만을 쥐고 있는 점에서 경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불설대승관상만나라정제약취경> 상권의 “오른손에는 용화수가지를 잡고 왼손으로 軍持를 잡고 蓮花月 위에 앉는다”에 의거하여 미륵 성도를

21) 大英博物館 監修, 『西域美術 1』(講談社), (1982), fig78.

상징하는 龍華樹를 연꽃으로 대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용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대일경소>에도 보이는데 “…… 용화라는 것은 바로 용중의 상스러운 꽃(龍中所尙之華)으로 서방에 자못 그 종이 있다”라고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마라습 번역의 <미륵성불경>에도 “그 니뭇가지는 갖가지 보배용을 드리우리라 그 꽃잎들은 칠보의 보배 빛을 내고 각각 다른 빛깔의 열매가 열려……”라고 화려하면서도 잎이 많은 꽃임을 설명하고 있다. 크기에 대해서도 <미륵하생경>에는 “높이 1유순, 둘레가 오백 보 되는 용화라는 큰 나무가 있을 것인데 미륵보살은 그 용화수 아래 앉아 무삼도를 이루느니라”라고 하여 거대한 규모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작품으로 표현할 때는 매우 어려워 가장 보편적인 연꽃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관에 화불이 있는 미륵상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통일신라시대 719년에 제작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에 이미 등장하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높혀 준다.²²⁾ 이외에도 미륵을 논할 때 석가 보다 큰 대규모의 크기로 미륵을 설명하기도 한다. 대체로 석가의 크기는 丈六인데 비해 미륵은 十六丈이라는 경전상의 크기와 관련짓는다. <미륵대성불경>의 16유순, <대지도론> 서문의 키 160척, 얼굴 길이 24척, <법원주립> 12권의 미륵의 키 160척, 얼굴 24척 등에 의거하여 대불들은 미륵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불상 중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가장 커 18m 정도 되며 기타 10m 정도 되는 거불이 고려 전기에 다수 제작되었다. 이는 160척 즉 48m 정도의 경전상의 미륵의 크기에는 못 미치지만 대불의 특성상 미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크기만으로 불상의 존명을 밝히기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는 불상의 후원자 성격이라든가 목적, 재료적 특징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포동 보살상은 1m 정도로 작은 규모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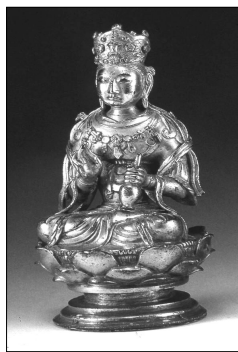
이상의 도상이 유행하던 당시 중국에서는 미륵의 경우 보관에는 탑을, 손

22) 정은우, 앞의 논문, 『박물관기요』 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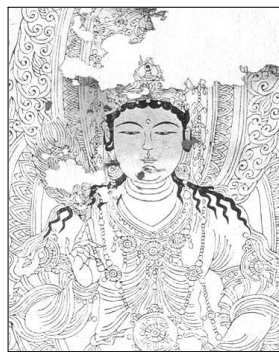
에는 균지(정병)을 든 도상이 유행하였는데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 예가 많이 남아 있다. 보관의 탑은 특히 인도에서 유행하였던 형식인데²³⁾ 손에 든 정병과 더불어 불공 번역의 『八代菩薩曼多羅經』에 기인한 것이다. 『팔대보살만다라경』에 의하면 “관음보살은 오른손은 여원인을 짓고 왼손에는 연화를 들며, 미륵은 오른손은 시무외인, 왼손은 軍持(정병)를 들며 관 중간에는 스투파가 있으며 반가좌로 앉았다”라고 하였다. 보관에 탑이 있는 미륵에 대한 언급은 앞서 인용한 당대 번역된 『大日經』에 쓰인 “미륵보살은 …… 관중에 슬도파가 있다(冠中有率堵婆)”에도 보인다. 그러나 인도에서 보살상의 보관에 탑이 등장하는 시기는 매우 늦어 팔라시대부터 이다(그림 21). 중국의 경우에도 10세기경부터 등장한다. 이를 따른 요대 미륵보살상의 대표적인 작품이 대영박물관소장과 天津文物公司 소장의 금동미륵보살좌상으로 보관에는 탑이 있으며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그림 22). 송대의 경우 985년 청량사 불상에서 나온 미륵보살도에 보관에 탑이 있는 미륵보살도가 있어 요와 같은 양상을 띤다(그림 23).



〈그림 21〉미륵보살좌상, 인도 팔라시대, 인도 파르나박물관



〈그림 22〉금동미륵보살좌상, 요, 중국 天津文物公司



〈그림 23〉청량사 불상내 출토 미륵보살도 부분, 송 985년경

23) 손영문,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2006. 12), 122~123쪽.

이에 반해 보관에는 화불을, 손에는 연꽃을 든 보살상은 관음상이 된다. 요녕성 조양에 위치한 조양북탑의 경당과 천궁에서 나온 석함에는 대일여래와 팔대보살이 조각되었고 각각의 존명이 새겨졌는데 여기서도 미륵은 군지(정병)를, 관음은 여원인에 연화를 들고 있다.²⁴⁾

보살의 경우 지물로서 연꽃을 드는 경우는 관음보살이나 미륵외에도 사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전에 의하면 문수보살도 청련을 들고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한송사지 석조보살상(국보 124호)의 손에 든 연꽃까지는 문수보살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²⁵⁾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 보살상들이 들고 있는 연화 또는 연화가지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관음이지만, 미륵도 연꽃을 들며 청련으로 보아 문수보살의 지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는 상상의 식물인 미륵의 용화수가 연꽃으로 대체되었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관음과 미륵은 통시대적으로 유행했던 도상인 점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해석되며 당시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특히 미륵은 확실한 도상이 통시대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그 시대 유행했던 다른 형식과 결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개포동 마애보살상의 존명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체 조각 중에서 보관의 화불과 손에 든 연꽃가지를 매우 정확하고 치밀하게 조각한 의도는 분명 이 보살상의 존명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김천 광덕사나 이천 마애불에서 보이는 불분명한 연꽃과는 달리 연봉오리가 점점 피어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점과 보관의 화불에서는 관음일 가능성도 높지만 미륵이 입는 대의식 착의법에서 고려시대 전반적으로 유행했던 미륵과의 관련성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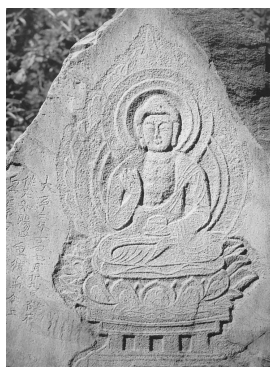
2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編, 『朝陽北塔 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文物出版社, 2007), 도 32, p.90.

25) 권보경,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 연구」, 『사림』 25, 2006. 6, 수선사학회, 115쪽.

V. 맺음말

개포동 마애보살상은 보살임에도 천의가 아닌 여래가 입는 변형편단우견식의 대의를 입은 점이 특징이며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다. 보관은 도식화된 삼면관으로 옆에 마치 뿔과 같은 관대에 꽃장식이 있으며 관대가 밑으로 흘러 내린 모습이다. 이러한 보관은 특히 이천 보살상을 비롯해 고려전기의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현재 명문이 있는 고려시대의 마애불은 977년에 수리된 광주 교리태평2년명 약사여래좌상(그림 24),²⁶⁾ 981년명 이천 태평흥국6년명 마애보살좌상(전체높이 3.2m), 그리고 개포동 마애보살상 등 3점 밖에 없다. 이 가운데 977년명 광주 교리불상은 여래상이고 조성연대가 정확하지 않은데 비해 나머지 두 상은 정확한 제작연대가 있어 10세기의 작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981년명 이천 마애보살상과 985년명 개포동 마애보살상은 두 상 모두 비슷한 시기에 흡사한 보관 형



〈그림 24〉 교리태평 2년명 약사여래좌상, 977년 수리, 경기도 광주

식, 그리고 보관의 화불과 손에 든 지물까지 매우 비슷하며, 관음 혹은 미륵으로 불리는 작품들이다. 화불이나 연꽃가지의 표현에서는 관음보살일 가능성도 높지만 미륵 역시 화불이 있는 보관을 쓰며 보살이 입지 않는 대의식착의법을 걸친 점 등에서는 미륵일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정해 보았는데, 앞으로 개포동 보살상의 정확한 존명은 고려전기 10세기 고령지역의 사상이나 신앙적 측면과도 관련지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26) 김춘실, 「하남시 교산동〈태평2년명 마애약사여래좌상〉의 조성시기 검토」,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45~54쪽.

【참고문헌】

- 大英博物館 監修, 『西域美術 1』(講談社, 198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編, 『朝陽北塔 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文物出版社, 2007).
- 국립경주박물관 편, 『신라의 금동불』, 2002.
- 『고령문화사대계 1 역사편』, 고령군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고령문화사대계 2 사상편』, 고령군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12.
- 『옛 고령사람들의 자취를 찾아서』, 대가야박물관, 2006.
- 김리나,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89.
- 안귀숙, 「중국 정병 연구」, 2000,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우, 『고려후기불교조각사연구』, 문예출판사, 2007.
- 정우택, 『고려시대의 불화』, 시공사, 1997.
- 김춘실, 「하남시 교산동(태평2년명 마에약사여래좌상)의 조성시기 검토」,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45~54쪽.
- 권보경,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 연구」, 『사립』 25, 2006. 6, 수선사학회.
- 손영문,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2006. 12), 117~149쪽.
- 임영애, 「원우5년 원주 입석사 마에불좌상」, 『강좌미술사』 12, 한국미술사연구소, 1999. 3, 195~211쪽.
- 정은우,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박물관기요』 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2007), 83~87쪽.
- _____,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고려중기 금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 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 3~18쪽.
- _____,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상과 송대 외래요소의 수용」,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예경, 2007, 193~207쪽.
- _____,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 8, 2009. 10, 113~127쪽.
- 최선주, 「고려초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연구』 14(2000), 3~

33쪽.

최성은, 「명주지방의 고려시대 석조보살상에 대한 연구」, 『불교미술』 5, 동국대학교박물관, 1980, 56~78쪽.

한기문, 「고령지역 불교사상의 전개」, 『고령문화사대계』 2 사상편.

Abstract

Art of Goryeong and Seated Bodhisattva of Gaepo-dong

Jeong, Eun-Woo

There are various types of Buddhist Arts of Koryo dynasty period such as stone pagoda, stone lamps, Buddhist statures and more in Goryonggun, Gyungbuk province. Among them, rock cut Bodhisattva seated stature (磨崖菩薩坐像) located at Gaepodong is an important work of art in the point of recognizing manufacturing period in the year AD 985 by figuring expressed statements as 2nd year of King Yunghi production on the backside of the sta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ute are crown parted in three sides, seated Buddha figure engraved with clear characters and a lotus boom held in hand. Bodhisattva wears uncommon modified style as the drapery falling down from the right shoulder is tucked into the robe at the waist in front (偏斷右肩式) instead of a scarf. The above mentioned characteristics are common on the Bodhisattva stature in Koryo dynasty art.

At present, only three rock cut Buddha image with expressed statements of Koryo period remain in this country. They are The Seated medicine Buddha repaired around AD 977 and located at Gwangjugun, Gyunggi province (京畿道 廣州), rock cut Bodhisattva seated stature (磨崖菩薩坐像) with total height 3.2 m built around AD 981 at Yicheon, Gyunggi province (京畿道 利川), and rock cut Bodhisattva stature at Gaepodong. Two Bodhisattva statures at Yicheon and Gaepodong were built in similar period of time and shown same characteristics as crown style, seated Buddha figure on a crown and a object held in hand. These Bodhisattva statures are called Avalokiteshvara or Maitreya. The statures may be assumed as Avalokiteshvara by observing seated Buddha figure and a lotus boom, but the statures can be assumed to be Maitreya Bodhisattva by considering its crown with seated Buddha figure and buddha wearing method not common to Bodhisattva.

In case of Maitreya Bodhisattva, the stature with seated Buddha figure had been shown in Maitreya Bodhisattva standing stature at Gamsansa from AD 719 of Unified Silla dynasty period, and demonstrated graphical characteristics depicting in the Sutra such as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or 《彌勒大成佛經》. The lotus boom had been a symbol of Avalokiteshvara, while it was believed to transform from imaginable plant named Yongwhasu (龍華水) related with Maitreya to lotus a common plant during that time.

The exact title of Bodhisattva at Gaepodong is one of important subject to be studied related with ideology and religion of Goryong area in the period of early Koryo period, 10th Century.

Key Word

Gaepo-dong, Goryeong, Seated Bodhisattva, Maitreya, Koryo

- 논문투고일 : 2009.12.9. 심사시작일 : 2009.12.10. 심사완료일 : 2009.12.18.

【부 록】 전국 청석탑 목록 (총 13기 유존)

연번	탑명	현재 층수	평면	현재높이 (m)	제작년대	소재지	특징	비고
1	동화사 엽불암 청석탑	10층	방형	2.38	10세기	대구 동구 도학동 산124-1		대구 유형 19호
2	대곡사 청석탑	12층	방형	1.55	9~10세기	경북 의성군 다인 면 봉정리 894번지		경북 유형 405호
3	반룡사 청석탑	12층	방형	2.4	10세기	경북 고령군 쌍림 면 용리 반룡사(현 대가야박물관)		경북 유형 117호
4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	10층	방형	2.38	9세기	경남 함천군 가야 면 치인리 10		보물 518호
5	두망사 청석탑	13층	방형	3.0	10세기	경남 진주시 문산 읍 상문리 325		경남 유형 200호
6	법화암 청석탑	7층	방형	0.76	고려초기	경남 창령군 영산 면 구례리 법화암		경남유형 69호
7	법주사 여적암 청석탑	7층	방형	0.6	고려초기	충북 보은군 속리 산면 사내리 산1-22		충북 유형 297호
8	창룡사 청석탑	9층	방형	0.97	고려초기	충북 충주시 직동 367-1 창룡사		충북 문화재 자료 56호
9	세심사 청석탑	9층	방형	1.95	고려초기	충남 아산시 연지 읍 산양리 세심사		충남 문화재 자료 231호
10	영월 무릉리 청석탑	5층	방형	1.6	고려초기	강원 영월군 수주 면 무릉리		
11	보문사 청석탑	7층	방형	0.88	고려초기	강원 원주시 행구 동 산105		강원 유형 103호
12	금산사 6각 청석탑	11층	6각	2.18	10세기	전북 김제시 금산 면 금산리		보물 제27호